태국 입법의회는 터기에서 열린 제 3 차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태국 국왕의 자족적 경제 철학'에 대해 발표했다.

입력 2018.10.17 (12.00)

태국의 입법의회의원 대표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얼린 제 3 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참석했고 개회식 연설을 통해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행을 위한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국의 자족적 경제'라는 경제 철학 발표함

'킷띠 와리논' 태국 입법의회의원 대표단장을 비롯해 '쏨폰 판마니' 그리고 '위란 찬타삿코손' 입법의회의원은 2018 년 10 월 8 부터 11 일까지 터기 안탈리아에서 '경제와 환경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 열린 제 3 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사 입법의회대표는 1997 년 에 발생했던 태국의 경제위기 회복하고 2007-2008 년의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태국 라마 9 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경제철학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주제로 연설을 했다. 태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따른 실행한 준비를 갖추었고 2016 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G7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중 개발 도상국들이 조직한 77 개국 그룹과 경험을 나누면서부터 아세안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장려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9 년에는 아세안 의장국(ASEAN) 및 Inter-Parliamentary Assembly(AIPA) 의장국으로서 태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SDGs Studies & Dialogues Centre)'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
락카나 트억텅 기자/편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쏨자이 통쿤/번역